

북남관계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 우리 조국의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에 도전해나선 쓰레기들과 이들의

의 치명리는 죄행을 묵인해온자들에게 대한 우리 인민의 격노한 징벌열기를 담아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이미 청문한대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

였다. 북남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였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역사적인 관문점북남수뇌회담의 성과물로 평가

되어왔지만 무뎠무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다.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될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과 아무런 가치도 반성기미도 없는자들로부터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단계의 행동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 처사어부에 따라 련

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를 정할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남조선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계획들을 유발시킬것이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북남관계가 돌아킬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깬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시지라는것을 통해 련속 두차례나 강황한 언설을 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서명시 남측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백리까지 빌려 매고 2018년 관문점선언때 사용하였던 연락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

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없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대할수 있던 말인가.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애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언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스메스해지는것을 느꼈다.

남측스스로 얼마나 뼈아픈 죄를 범했는가를 잘 알고있기에문일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것은 비열한 들이나 하는것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언설에 비견되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관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화성기방송과 뼈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데 대하여 명기되어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두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뼈라살포를 못 본체 방치해둔것은 누가 보기에든 남조선당국의 책임이라는것

이 명백백하다. 철면피함의 극치는 저들이 마치고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듯이 증언부인한것이다. 도대체 관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것이 한조항이라도 있던 말인가. 한것이 있다면 주권수호는 하지 못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할터라 다닌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 《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것은 여우도 낫을 붙힐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제재의 틀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통략물로 전략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공장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수 없다고 구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있다는것이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번도 아니고 언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있는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다. 뿌리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몰락해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온할수 없다는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인이라면 리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결태있게 찾아할줄 아는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활영기, 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련에같이 친진하고 희망에 부풀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 정의로운척, 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친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 꼴볼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다.

본말을 전도한 미사려구의 라렬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뼈라살포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당국때문에 초래되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언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라수를 범법해놓은 화려한 미사려구로 일관되어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진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더더라도 한결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는데 따라붙는 글썽표현들을 다듬는 데 폼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뼈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 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시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친하의 망동짓을 꺼리 겹겹이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일부》의 소행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로 매도하고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만 단말수 있던 말인가.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해를 건드린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얼마전 청와대가 대북뼈라살포는 백 해마다의 행위라고 공식 인정하며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것도

남측스스로 얼마나 뼈아픈 죄를 범했는가를 잘 알고있기에문일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것은 비열한 들이나 하는것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언설에 비견되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란 말은 하면서도 그 출발점으로 되는 저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것은 한사코 피하고 원하지 않는 격랑에 들어갈수 있다고 아무재기는 치명적으로 해를 끼친 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저의는 명백하다.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것이 참으로 알락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밀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쁨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남조선당국자는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력사적인 관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을뿐 아니라 8천만 겨레앞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공언한 당사자로서 북남관계가 잘되든 못되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립장에 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할것이다. 그런데 이번 언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듯이 밀어버리고있다. 《정권》이 바뀌는데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였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바람에 북남관계가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우는소리만 늘어놓았는데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저들이 할 일이란 애초에 없었다고 직방 터놓는것이 더 나았을것이다. 언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지지 못했기때문이라는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수 없다.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것이 소위 《국가원수》가 취할 자세와 립장인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쓰레기들의 대북뼈라살포와 저들을 비난하고 소통을 단절하

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로 돌아갈까봐 걱정스럽다느니,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느니 하고 력설한것이다. 한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에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책임진 주인의 자세와 립장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권언과 충고에 귀머거리, 병어리흥내를 내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도 모자라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북남선언들은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임을 운운하며 《여건조성》이 안되어도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할것처럼 객객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의지만으로 마음대로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다, 더더러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지푸한 사대주의라명을 한바탕 늘어놓는 순간 변할수 없는 사대주의의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 집을 란도 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였는가. 자라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결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울가미때문

이다.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덤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넘겨 바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짚어볼수 있다. 전쟁놀이를 하라고 하면 전쟁놀이를 하고 침담부기를 사가라고 하면 허둥지둥 친문학적혈세를 섬겨바칠 때 저들의 미련한 행동이 북남합의에 대한 란쪽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모를 리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지난 2년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것이다. 신의를 배신한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주제109(2020)년 6월 17일 평양